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1, pp.257-264, February 28,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257
JCCT 2019-2-31

대학생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

Interpersonal relationship, body image,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SNS use time of college students

신민정*, 편하형**, 김현정**, 문지현***

Sin, MinJeong*, Pyeon, HaHyeong, Kim, HyunJeong**, Moon, JiHyun*****

요 약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대학생 144명에게 SNS 사용시간,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자 t-test와 ANOVA로 파악하였고, 사후 검정은 Duncan's multiple test로 확인하였다.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파악하였다. 대상자 144명 중 남자는 55명(38.2%), 여자는 89명(61.8%), SNS 사용 시간 여자 2.2시간, 남자1.9시간이었다. SNS 사용 시간과 대인관계 유의한 상관관계 양적 상관을 보였는데(p<.014) 특히 하위요인 중 친밀감과 높은 수준의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신체상 및 학업성취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인관계와 신체상 간의 관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3).

주요어 : 대학생, SNS,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It was identified as t-test and ANOVA to confirm SNS usage tim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ody image, and academic achievement to 144 college students. Duncan's multiple test Respectivel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body image,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SNS use time. Of the 144 subjects, 55 (38.2%) were male and 89 (61.8%) were female, and 2.2 hours for female and 1.9 hours for male. (P <.014),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body image and academic achievement, although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timacy and high level among sub-factor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and body image (p <.003).

Key words : college students, S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Body Image, Academic Achievement

Ⅰ. 서 론

최근 2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웹 환경의 큰 변화는 SNS이다. 온라인상에 "나"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서로 다른 "나"들이 연결되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1]. SNS 이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15억 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내 SNS 이용자도 3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2]. 특히 스마트폰

*준회원,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제1저자)
**준회원,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참여저자)
***정회원,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10월 15일, 수정완료일: 2018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27일

Received: October 15, 2018 / Revised: November 23, 2018
Accepted: December 27, 2018
***Corresponding Author: moonjh86@mokpo.ac.kr
Dep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Korea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국내 SNS 보급률은 75%로 세계 최고로 조사되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SocialNetwork Service: SNS)의 사용이 늘고 있으며 특히 20대(89.0%)가 제일 많이 이용한다[2]. 이처럼 SNS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등장한 어떠한 기술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날로 커져 우리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3][4]

이러한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SNS가 인간관계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 시킨 것으로, 인맥관리에도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미국의 대표 SNS가 된 페이스북의 경우 디지털 인맥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조했다.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친구를 찾을 수 있고,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이나 사진에 담아 올려 쉽게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뜻을 전할 수 있다. 이는 SNS 사용만으로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관계형성과 인맥관리가 가능한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SNS는 실시간 정보전달 및 교환, 대인 관계형성 등 긍정적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을 가져왔다[5].

이는 소통의 변화로 기존의 방법들이 자신들만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폐쇄적인 성향을 가진 반면 SNS는 자신의 관심사와 의견 등을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인터넷 커뮤니티보다 더 즉시적이고, 개방적이며 관계 맺는 사람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6].

SNS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SNS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실제로 맺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정서적 교류를 하기도 한다[7]. 또한 SNS를 사용하면서 외로움이 낮아지기도 하며[2] 행복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얻는다[8][9][10]는 점을 살펴볼 때, SNS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SNS상에 올라오는 타인의 게시물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SNS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과 타인의 모습을 비교를 하게 되면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11].

그러나 SNS 사용이 과다해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많아지고 있다. SNS에 의존하거나 소셜미디어 중독적 현상을 일컫는 소셜 미디어 중독 장애(Facebook Twitter) 등에 초점이 많이 가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NS를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따라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건전한 인터넷 환경과 학교 생활 지도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사용시간,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SNS사용시간 정도를 파악한다.

2) SNS사용 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3) SNS사용 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및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는 M시에 소재한 대학교 2학년부터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수집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를 허락한 대학생으로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익명보장, 연구 참여 ―중단에 대해 설명 후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의 평균차이 검정 및 상관분석을 위한 대상자 수를 양측 검정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3, 검정력 .95 로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 134명이었으나, 설문이 가능한 대학생 210명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연구

대상자는 144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SNS 사용시간(SNS Use Time)

SNS 사용시간의 측정은 양혜승 외[12]가 개발한 '페이스북 읽기' 측정 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다양한 SNS 사용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SNS에서 다른 사람이 올려놓는 내용을 읽는 행위에 소요되는 하루 평균 시간, SNS에서 다른 사람의 피드에 직접 방문하여 내용을 읽는 행위에 소요되는 하루 평균 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자신의 SNS 사용시간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SNS 사용시간을 한 시간 단위로 범주화하였다. '30분 미만' 1, '30분 이상~2시간 미만' 2, '2시간 이상~5시간 미만' 3, '5시간 이상~' 4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발 당시와 본 연구에서 .96이었다.

2)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

Schiein과 Guernet[13]의 대인관계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이형득과 문선모[14]가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한 대인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7가지 하위영역에 걸쳐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으면 해당영역의 대인관계성향이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6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3) 신체상(Body Image)

대학생의 신체상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도구로 Mendelson, Andrews, Bucholz[15]가 청소년과 성인을 위해 개발한 신체존중감척도(Body Esteem Scale, BES)를 이정숙[16]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도구는 외모, 몸무게 신체 특성에 관련된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총 23문항, Likert 방식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의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비교적 그렇지 않다.' 2점, '비교적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채점되며, 신체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문항인 4번, 7번, 11번, 13번, 17번, 18번, 19번, 21점은 역채점 하였다. 이척도의 점수는 최저 23점부터 최고 9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정숙[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6이었다.

4)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직전학기 평점 평균(Grade Point Average: GPA)인 2017년 2학기의 성적 평균학점으로 개인이 직전학기 성적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5.0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특성 및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로, SNS 사용시간과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 전체 144명 중 남자는 55명(38.2%), 여자는 89명(61.8%), 이었다. 사용하는 SNS 종류로는 페이스북 117명(81.3%), 인스타그램 76명 (52.8%), 트위터 10명 (6.9%), 블로그 8명(5.6%), 기타 7명(4.9%), 카카오스토리 1명(0.7%) 이었다. SNS 사용시간은 30분미만 28명 (19.4%), 30분 이상 2시간 미만 75명(52.1%), 2시간이상 5시간 미만 376명(25.7%), 5시간 이상 4명 (4.0%)이었다. SNS 사용이유는 지인들의 근황파악이 34%, 나의 근황 공유 13.2%, 다른 사람들 따라 8.3%, 새로운 관계 맺으려고 7.6% 등 이었다<표1>.

2.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 차이

SNS 사용시간은 평균 여자가 2.24시간, 남자의 평균이 1.89로 나타났으나(t=-3.036, p<.05)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표2>

3. SNS 사용시간과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 관계

대학생의 SNS 사용시간, 성별,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적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r=.241, p=.004), 대인관계(r=.205, p=.014)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신체상(r=-.024 p=.779)과 학업성적(r=-.045 p=.593) 에서는 부의 방향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대인관계와 신체상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44, p=.003)<표3>.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tics

일반적 특성		n	%
성별	남	55	38.2
	여	89	61.8
학년	2	50	34.7
	3	62	43.1
	4	32	22.2
SNS 종류	페이스북	117	81.3
	트위터	10	6.9
	인스타그램	76	52.8
	카카오스토리	1	0.7
	블로그	8	5.6
	기타	7	4.9
이용 시간	< 30min	29	20.1
	30min ~ < ~2hr	75	52.1
	2hr ~ < 5hr	36	25.0
	≥ 5hr	4	2.8
인맥 수	1~100명	30	20.8
	101~200명	33	22.9
	201~300명	29	20.1
	301~400명	24	16.7
	401명 이상	27	18.8
사용 이유	다른 사람의 최근변화를 알기 위해	49	34.0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12	8.3
	새로운 사람과 관계형성	11	7.6
	내 일상사, 사적인 글 게시 및 반응 확인	19	13.2
	기타	53	36.8

표 2. 성별에 따른 SNS 사용시간, 학업성취도, 신체상, 대인관계 차이
table 2. Differances of SNS Use tim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ody image, Academic Achievement

	남자 (n=55)	여자 (n=89)	t	p
	M(SD)	M(SD)		
Use Time	1.89(0.57)	2.24(0.81)	-3.036	0.003
Interpersonal-relationship	72.36(8.75)	71.47(9.86)	0.550	0.858
Body Image	53.73(5.86)	54.93(6.42)	-1.131	0.907
Academic Achievement	3.30(0.51)	3.52(0.52)	-2.477	0.606

표 3. 성별, SNS 사용시간,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table 3. Relationship with sex, SNS Use tim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ody image, Academic Achievement

	1	2	3	4	5
1. sex	-				
2. Use Time	.241**	-			
3.Interpersonal-relationship	-.046	.205*	-		
4. Body Image	-.137	-.024	.244**	-	
5. Academic Achievement	.148	-.045	.032	.081	

주. *p <.05, **p <.001

Ⅳ. 논의 및 결과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의 차이 및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성별에 따른 SNS 사용시간은 여성이 좀 길었고 사용하는 SNS 종류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순이었다. 사용시간은 30분 이상 2시간 미만의 경우 75명(52.1%)로 가장 많아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들은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였다[2].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및 학업성취도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20대 대학생이라는 동질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나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적인 연구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또한 SNS를 사용하는 이유에서도 기타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최근 변화를 알기 위해'가 49명으로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17][18][19][20]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연결을 원하고 연결을 시도한다는 면에서 대인관계와 연관이 깊었다[21]. 이로써 연구자들이 세운 'SNS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할 것이다.' 라는 연구 질문은 지지되었다. 또한 대인관계 척도의 특성 상 하위요인 중 친밀감은 SNS 사용시간과 높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SNS 사용시간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그 외에도 하위요인 중 민감성과 이해성에서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인터넷의 사용이 대인관계와 관련됨이 밝혀졌는데, 실제로 최근 SNS 연구들이 외향성, 외로움, 사회적 긴장감(social anxiety), 자존감(self-esteem) 등 사회적 상호작용과 직결되는 심리적 속성들을 매체 이용의 예측 변인으로 고려한 이유는 이들 매체를 관계지향적인 것으로 파악했다[22].

'SNS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신체의 왜곡된 정도가 클 것이다.' 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SNS 사용시간에 따른 신체상을 살펴보았는데 부의 방향은 확인을 하였으나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었다. 최근 대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SNS 계정의 사용은 자신의 일상이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 정보공유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 SNS종류에 따른 신체상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자주 사용하는 SNS종류의 특징과 더불어 성인초기의 대상자들이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Price[23]는 신체이미지를 신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신체가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 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며 항상 변화하는 것으로 여겼다.

SNS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갖고 있는데[24], 그 중 SNS를 많이 이용하는 여자 대학생의 경우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하겠다[25]. 다른 연구에서도 페이스북 등의 SNS 사용은 신체불만족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신체상, 외모비교, 날씬함의 내면화, 체중에 대한 만족도, 신체감시, 섭식장애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26][27][28][29]고 하여 SNS의 사용은 여자 대학생의 정서경험과 신체존중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중 SNS상의 신체이미지 게시물에 자주 노출 되었을 경우 그 영향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신체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개인이 느끼는 상실감이 커져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30].

SNS 사용시간에 따른 전체 학점평균, 전체 출석률, 하루 공부시간, 대학&교육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취득 학점으로는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려 한 것은 학점이 교육성과의 대표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수업출석률, 강의실 앉는 위치, 하루 공부하는시간, 대학교&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측정하였다. 학업성취도와 강의실 좌식간의 관계[31][32][33], 학업성취도와 출석률간의 관계[34][35][36][37]는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크다는 점을 통해 함께 측정함으로 학업성취도와 SNS사용시간과의 관계를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SNS사용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성과는 낮을 것이다.'라는 연구 질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SNS사용시간과 강의실 앉는 위치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강의실 앉는 위치는 뒤쪽으로 가고 있으며, 하루 공부시간을 짧아지고, 대학&교육 만족도는 낮았다[38]는 선행연구에서처럼 사용시간 외에 중독을 포함한 연구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의 차이 및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사용시간 은 남학생의 경우 1.89시간, 여학생의 경우 2.24시간 이었고,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SNS 사용시간은 대인관계에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고, 신체상 및 학업성취

도와는 방향은 부의 방향이나 통계적으로 의의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초점이 되었던 청소년 시기가 아닌 성인초기의 대학생으로 설정하여 SNS 사용시간과, 대학생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역중심대학에 편중 되어 있어 일반화를 위해서는 대상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반복적이 연구를 제언한다.

SNS 사용은 중독의 위험성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 보다는 이 시대의 한 현상으로 스마트폰과 SNS에 대한 건강한 사용을 교육하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시사점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후속연구에서는 SNS중독의 나쁜 결과만을 찾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고, 이들의 공통점과 중요한 변인들을 찾아 SNS사용에 대한 교육 및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의 수행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References

[1] Pi SJ, “The Difference in SNS Addiction possibility, Self-Esteem and Person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SNS Behavior”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3.

[2] KISA. 인터넷이용자의 SNS이용실태조사. 2018.

[3] E. H. Lee, “The Impact of Facebook access motivation on off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and continuance usage intention of Facebook”,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2, pp.97-105, May 31, 2018.

[4] Kim SA, “A Study to the Different Effect between Individual Influence and Social Influence on Use-Diffusion of Social Network Servic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1.

[5] Lee EJ , “Twitter as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Vol. 48(1) pp. 9-58, 2011.

[6] 김은미, 이동후, 임영호, 정일권, Myths of SNS unveiled : the evolution of 'talk, play, and love' medium, 2011.

[7] Baek CR(2012),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couragement in the relations between Facebook use and Loneliness, nterpersonal Relationship,“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2.

[8] Keum HJ, “The Influences of Social Media Use on Soci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5(5) pp. 7-48, 2011.

[9] Kim BS, “A study on Facebook user's affective effect pertaining to Facebook use: Focusing on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41(1) pp. 85-109, 2015.

[10] Ellison, N. B., Steinfield, C., & Lampe, C.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12(4) pp.1143-1168, 2007.

[11] Lee, S. Y. “How do people compare themselves with others on social network sites? : The case of Facebook,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32 pp. 253-260, 2014.

[12] Yang HS ,Kim JH ,Seo MH, “Does Facebook Enrich Our Social Relations? : Examining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Psychological Motivation, Facebook Use Behavior,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6(5) pp. 270-297, 2012.

[13] Schlein, S., Guerney, B., & Stover, L.,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1.

[14] Lee, H. D., & Moon, S. M.,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train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Vol. 19 pp. 195-203, 1980.

[15] Mendelson, B. K., Mendelson, M. J., Andrews, J., Balfour, L., & Bucholz, A., “Three aspects of body esteem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Differential relations with weight and self-esteem,”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17(1) pp. 145-160, 1997.

[16] J. S. LEE , “The Correlation among adolescents gender, obesity, others appraisal of their bodies and the adolescents body-esteem,”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2001.

[17] T. A. Pempek, Y. A. Yermolayeva, S. L. Calvert, “College students' social networking experiences on Facebook”,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0, No. 3, pp.227-238, May-June 2009.
[18] Subrahmanyam, K., Reich, S. M., Waechter, N., & Espinoza, G., "Online and offline social network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by emerging adul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9(6) pp. 420-433, 2008.
[19] Raacke, J., & Bonds-Raacke, J., "MySpace and Facebook: Applying the 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to exploring friend-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11(2) pp. 169-174, 2008.
[20] Cheung, C. M., Chiu, P. Y., & Lee, M. K., "Online social networks: Why do students use facebook?,"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7(4) pp. 1337-1343, 2011.
[21] Jeon, H. S., & Hong, K. P., "Relationship ofuser characteristics of SNS and Interpersonal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Vol. 30, No. 1, pp.41-47March 2017, http://dx.doi.org/ 10 .21493 / kscg .
[22] Kuss, D. J. & Griffiths, M. D.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 A Review of the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 8(9) pp. 3528-3552, 2011.
[23] Price, R. A. "Mirror, Mirror, on the wall", Nursing Times," Vol. 82(40) pp. 58-62, 1986.
[24] Tiggemann. M. & Slater, A. "NetGirls : The Internet, Facebook, and body image concern inadolescent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Vol. 46(6) pp. 630-633, 2013.
[25] Kim MH, "The Effects of Facebook Usage on Female College Students' Body Image Concern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9(5) pp. 272-297, 2015.
[26] Smith, A. R., Hames, J. L., & Joiner, T. E. "Status Update : Maladaptive Facebook usage predicts increases in body dissatisfaction and bulimic symptom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149(1-3) pp. 235-240, 2013.
[27] Holland, G. & Tiggemann, M. "A systematic review of the impact of the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on body image and disordered eating outcomes, Body Image," Vol 17 pp. 100-110, 2016.
[28] Manago, A. M., Taylor, T. & Greenfield, P. M. "Me and my 400 friends : The anatomy of college students' Facebook networks, their communication patterns,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8(2) pp. 369-449, 2012.
[29] Meier, E. P. & Gray, J. "Facebook photo activity associated with body image disturbance in adolescent girl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 17(4) pp. 199-206, 2014.
[30] Kwon YD,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Obesity," Journal of Society of Korean Medicine for Obesity Research, Vol. 4(1) pp. 125-137, 2004.
[31]Brooks, D. M., & Rogers, C. J., "Researching pupil attending behavior within naturalistic classroom settings,"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Vol. 12(3) pp. 201-210, 1981.
[32] Daly, J. A., & Suite, A., "Classroom seatingchoice and teacher perceptions of students,"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Vol. 50(2) pp. 64-69, 1981.
[33] Woolfolk, A. E., & Brooks, D. M., "Chapter 5: Nonverbal Communication in Teaching,"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10(1) pp. 103-149, 1983.
[34] Cross, L. H., Frary, R. B., & Weber, L. J.,"College grading: Achievement, attitudes, andeffort," College Teaching, Vol. 41(4) pp. 143-148, 1993.
[35] Druger, M., "Being there: A perspective onclass attendance," Journal of college science teaching, Vol. 32(5) pp. 350-351, 2003.
[36] Friedman, P., Rodriguez, F., & McComb, J., "Why students do and do not attend classes: Myths and realities," College Teaching, Vol. 49(4) pp. 124-133, 2001.
[37] M. K. Choi &, J. S. Kim, "The Effect of Undergraduates' Self-Directed Learning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i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4, No. 4, pp.207-212, November 30, 2018.
[38] Choi SM,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Difference in Smart-phone Addiction Problems Impact on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 Master's thesis,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2015.

추가분석. SNS 사용시간과 대인관계만족척도의 하위척도들과 상관관계

Additional analysis. Correlation with SNS User time and subcategori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NS 사용 시간	만족 감	의사 소통	신뢰 감	친근 감	민감 성	개방 성	이해 성
SNS 사용 시간	1							
만족 감	.117	1						
의사 소통	.118	.593**	1					
신뢰 감	.160	.396**	.476**	1				
친근 감	.219**	.580**	.727**	.571**	1			
민감 성	.197*	.435**	.564**	.237**	.528**	1		
개방 성	.130	.567**	.781**	.465**	.690**	.474**	1	
이해 성	.172*	.586**	.737**	.396**	.717**	.657**	.641**	1
주. **p <.001 주. *p <.05								